

근무했던 회사택시 훔쳐 여자승객 태운뒤에 추행

서울 동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이 전에 일하던 택시회사의 차를 훔쳐내 여자 승객을 태운 뒤 훔기로 위협, 10여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강제로 폭행한 김남수(27·서울 성동구 화양동 597-43)씨를 절도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.

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

일 오후 1시께 전에 6개월 동안 일한 적이 있는 성동구 화양동 조흥운수 차고에서 서울4 파3849 영업용 택시를 훔쳐낸 뒤 이날 저녁 7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앞길에서 태운 조아무개 20·여·르피아노학원 강사)씨를 훔기로 위협, 대전 천안 등지로 끌고다니다 26일 오전 5시30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부근에서 조씨를 강제로 폭행했다는 것이다.